

#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앞에 자기의 속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성명

민족분열의 쓰라린 아픔을 더이상 그대로 안고 살수 없다는것이 온 겨레의 절절한 지향이며 시대적요구이다.

새해신년사에서 우리 최고수뇌부가 올해에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적전환기를 마련할데 대한 현실적인 방도를 내외에 열렬히 호소한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 국방위원회가 이 뜨거운 호소를 받들어 남조선당국에 원칙적인 중대제안을 보낸 기본방침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하루도 못되어 청와대의 몇몇 당국자들의 모의결과라며 우리의 중대제안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립장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처사는 무성의에 앞서 상식밖의 무지무도의 발로였지만 우리는 모든것을 누르고 또다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는 공개서한을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층 인민들에게 내보내었다.

런이어 애족, 애민의 호소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외에 천명함대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였다.

조선서해 5개섬의 열점지역을 비롯한 군사분계선 전지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도발》과 《위협》으로 간주될수 있는 사소한 군사적대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중독적인 조치를 취하는 길에 들어섰다.

특히 2월 5일에는 계절과 환경에 비추어볼 때 비록 때 이른것이 있었지만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대법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 행사개최문제도 남측의 기대이상으로 원만히 합의해주었다.

그것은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관계개선의 첫 단추를 꿰는 사안》으로, 그 무슨 《신회조정의 첫 단계로 여긴다.》는 남조선집권자의 의중을 최대한 심층히 고려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적조치들에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진정과 적극적인 노력이 깃들여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상반되게 의연히 동족대결소동에 극성을 부리고있다.

우리 최고지도부의 육아원, 애육원에 대한 현지시찰과 최고인민회의의원선거일정 등을 두고 최고존엄을 함부로 헐뜯으며 우리의 체제를 터무니없이 비방증상하는 행위를 꺼리낌없이 저지르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관문점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과 관련한 합의를 이룩해나가는 그 시각에는 판도에서 끌어내린 미국의 《B-52》핵전략폭격기편대들이 조선서해 적도상공에서 하루종일 우리를 겨냥한 핵타격연습에 돌아치게 하였다.

남조선의 군부호전장들은 지금도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전쟁연습이 인도주의와는 무관하다며 일정대로 강행할 속심으로 최종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에는 우리의 거들되는 경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군사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선의의 조치를 취하고있는 조선서해 열점지역인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정기적》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를 자극하는 로골적인 해상타격훈련을 공공연하게 벌리기도 하였다.

너무나도 상스럽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립장을 밝힌다.

1.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고 우리의 체제에 대한 터무니없는비방증상이 계속되는한 이룩된 합의의 리행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헐담과 악랄한 비난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고대역죄로서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등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악질이 그대로 류포되게 방치해두고 《언론의 자유》를 구실로 우리에게 대한 언론매체들의 비방증상이 계속되는 속에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처사는 없을것이다.

제 땅에서 벌어지는 일도 제대로 통제 못하는 무능한 당국과 채택한 그 어떤 합의도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수밖에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우리의 체제를 비방증상하는 행위가 당국이 주도하든, 언론이 벌리든 그 후과가 예상할수 없이 처참한 결과로 초래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2.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미국의 핵전략폭격기편대가 하늘에서 떠돌고 그 아래에서 신위를 쌓는다고 벌리는 연극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원칙적인 중대제안과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공개서한에 핵문제를 가지고 맞서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을 부추겨온 미국이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우리의 애족, 애민의 적극적인 노력에 유행무형의 갖가지 장예를 조성하고 찬물을 끼얹고있는 행방군이 바로 미국이다.

그런 미국의 핵전략폭격기편대들이 기어들게 나라의 평공을 개방하고 그것들이 제 하늘에서처럼 삐뚤이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게 만들고있는 속에서 신뢰를 조성하고 관계를 개선하자고 어떻게 웨쳐댈수 있겠는가.

안팎이 다른 처사에 놀아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사대와 굴종에 체질화되어 외세의

뒤받침을 받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것은 없을것이다.

3. 이 기회에 대화와 침략전쟁연습, 화해와 대결소동은 절대로 랑립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인도주의적목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군사적사안》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일정에 오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그대로 강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군부호전장들은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꾀변을 그대로 외우며 계획된 전쟁연습을 중지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웨쳐내고있다.

치렬한 전쟁마당에서 이루어지는 회담과 대화도 그때에는 불과 불이 오가는 대결행위를 멈추고 진행하는것이 하나의 판례이다.

하물며 마주앉아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사를 합의하고 그것을 실행시키자고 하는 현 시점에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을 강행한다는것은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원래 무모한 전쟁행위는 인도주의에 대한 가장 랑폭한 침해이고 유린으로 뒀다.

지난 시기 전쟁으로 인하여 생겨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위협천만한 핵전쟁연습마당에서 치른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 사태는 참으

로 엄중한 지경으로 번져지고있다.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민족사적호름에 합류할 용의가 있는가, 아니면 그에 역행하여 현 대결의 악순환을 그대로 지속시키겠는가 하는 시대와 겨레의 엄숙한 물음에 정식으로 자기의 속내를 명백히 밝힐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의 흥망성쇠는 당대 정사를 주관하는 정치인들의 맹렬한 리성과 과감한 결단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리치는 오늘의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도 배외가 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기존의 구태와 의연에서 벗어나야 하며 협애한 편견과 체질화된 대결본색을 버리고 민족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는 단호한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이상 동족의 뜨거운 진정을 악의적인 거부로, 겨레가 내민 화해의 손길을 적대적인 전쟁연습과 핵공갈로 무작정 뿌리치는 불신과 대결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선의와 아량, 인내와 자제력을 베풀어진 사고로 오만하거나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반드시 밝혀야 할 립장과 그 결과에 따른 차후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것이다.

주제 103(2014)년 2월 6일  
평 양

##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해치는 특대형도발행위

최근 공화국은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가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비방증상하는 일체 행위를 중지할데 대한 중대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선의있는 조치들을 련속 취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대결과 전쟁소동을 벌리는 속에서도 북남적십자접촉이 진행되고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합의한것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진정한 의지의 발현이다.

아무런 조건부도 없으며 단지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건설적인 제안과 성의있는 조치들은 지금 온 민족과 세계사회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런데 남쪽의 일부 보수언론들과 《대북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적인 행

위들을 일삼고있어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대결에 환장한 이들은 한없는 동로애와 민족애에 넘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을 모독하다 못해 민족의 최고존엄까지 거들며 비방증상하는 무엄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있다.

이 들은 공 화 국 에 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는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는데 대해 《백두혈통 부각의도》니 뭐니 하고 헐뜯는가 하면 절세의 위인께서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신데 대해서까지 시비 질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공화국의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분출이다.

천체적인 사상리론적이지와 특출한 정치실력, 탁월한 령도예능과 고매한 품도를 지닌 령도자가 인민들로

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것은 너무나도 웅당하고 자연스러운것이다.

그리고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는 철저히 공화국대부의 일로서 남조선의 보수언론들과 전문가나부랭이들이 감히 왈가왈부할것이 못된다.

특대형도발사건들은 겨레의 가슴속에서 절세의 위인들을 따르고 경모하는 마음을 흐려놓고 북을 자극하여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넣으려는 고의적이고 용납될수 없는 최대최악의 도발행위이다.

최고존엄을 자기의 심장처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결사의 각오로 충만되어 있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남조선의 보수언론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의 도발적인 행위를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껏 북남관계개선에 기여한것이란 표물만큼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이들이 공화국의 대법한 아량과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마련된 결실들을 《경제회생을 위한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의도》이니, 《식량지원요구 가능성》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억측을 하며 허바닥이 돌아가는대로 마구 떠드는것 또한 동족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며 모독이다.

파국에 치한 북남관계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대결에 환장한 보수언론들과 《대북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대결광신자들의 쓸라타질과 추동질에 있다.

지금도 보수언론들은 남조선사회 각계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고 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조치들을 외곡하면서 자국적인



## 한목소리로 일본의 과거범죄 규탄

지난 1월 29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제1차 세계대전발발 100년을 맞아 《전쟁의 교훈과 영구평화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북남대표들이 한목소리로 과거에 저지른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군사대국화와 체제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였다.

새해에 들어와 공화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중대제안을 내놓고 온 민족이 이를 적극 지지환영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북과 남의 대표들이 유엔무대에서 일본의 과거사외곡과

과거범죄부정, 성실한 사과와 배상에 대한 회피책동에 대하여 함께 성토했것은 자못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할수 있다.

북남관계개선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고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어떤 정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언젠나 민족증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백사만사를 덮어놓고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성사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유엔무대에서의 북과 남의 대표들의 공동대응은 그의 좋은 실례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민족공동의 리익과 요구를 위해서 북과 남이 힘을 합친다면 이 세상에 못배낼 일이 과연 있겠는가.

정초부터 유엔무대에서 북과 남이 한목소리로 민족공동의 문제에 대처한것처럼 북과 남은 화해와 협력, 단합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며 그 길에서 하나된 조선민족의 역센 힘을 시위해 할것이다.

이것은 민족의 요구이고 시대의 요구이다.

본사기자

설명절이면 누구나 그러하지만 아이들이 더욱 좋아하는것 같다.

세살잡이 아들과 함께 나는 설명절분위기로 흥성이는 김일성광장으로 향하였다. 광장에서는 학생소년들이 설명절놀이로 여념이 없다.

연피우기, 제기차기, 뽕줄놀이...

아들애를 안고 하나씩 가리키며 놀이명을 해주던 나의 눈길은 한무리의 아이들에게서 벗어났다. 로라스케틀을 타는 처녀애들이 서로 허리를 잡고 한줄로 서서 기차놀이를 하고있었다.

《통일렬차 달린다 부산행렬차 달린다...》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따라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어떤 정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언젠나 민족증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백사만사를 덮어놓고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성사시켜야 한다.》

굴굴을 새길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자는 이 애국애족의 호소는 온 겨레의 심장을 세차게激動시켰다.

그렇다. 북남관계개선은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서로가 반목질시하고 대결하여서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그래 우리도 함께 달리자. 땀흘없이 힘껏 달리자. 그래야 부산까지 빨리간다.》

아이들의 《렬차행렬》에 들이선 나와 아들애는 그들의 뒤를 따라 내달렸다. 몸이 날개가 된것만 같을정도 가벼워졌다. 그 기세로 달리면 통일의 그날까지 단숨에 가달올것만 같았다.

통일의 그날까지.

리 경 순

립춘이 지났다.

아직은 겨울의 잔재가 읊지마다에 웅크리고 앉아 밤이면 제법 집집의 창문들을 휩쓸며 심술을 부리지만 포근한 봄기운을 당해내기에는 맥이 진한것이 알린다.

으로부터 우리 민족은 립춘날이면 집안밖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해의 소원과 새봄을 축원하는 글을 써서 집대문이나 기둥에 붙이곤 하였다.

그것을 《립춘방》 또는 《립춘서》라고 하였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를 건설해가는 공화국인민들이 바라는 올해의 소원은 무엇일까.

평양을 비롯한 약동하는 공화국의 거리와 마을마다에 걸려있는 구호들을 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강성국가》, 《투쟁의 해》, 《분혁의 해》, 《비약의 봄바람》, 《조국통일》, 《우리 민족끼리》 시대정신이 담겨있고 공화국인민의 열의가 반영된 구호들속에 있는 통일의

질을 불러오고있다고 볼수 있다.

1945년에 태어난 《해방동이》가 어느덧 일흔의 현서리를 엮고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통일》, 《분렬》이라는 말을 리사책에서나 읽게 해야 할

다 더욱 뜨거웁다.

민족이 하나가 되자는데 누구의 《승인》을 받을것도, 우리 민족끼리 살아간다는데 그 누구의 눈치를 볼것도 없다.

북과 남의 문제는 바로 우리 민족내부문제이고 우리 민족끼리 합의하고 결과를 내면 그만이다.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마련했던 좋은 경험히 우리 민족에게 있지 않는다.

자연의 봄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오는것이지만 통일의 봄은 저절로 찾아오는것이 아니어서 우리자신의 노력으로 안아와야 한다.

추위에 졸아든 대지에 소생의 활력을 주는 봄과 함께 봄씩처럼 움트는 생각이다.

김정혁



## 봄 그리고 통일

글말들을 새겨보느라니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바라는 조국통일도 자연의 봄처럼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공화국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은 몇년간이나 열어든 북남사이의 빙하기를 해소하기 위한 참 좋은 봄의 계

책무가 우리 세대앞에 놓여있다.

더이상 미룰수 없는 겨레의 통일이고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민족의 분렬이다.

우리 겨레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뺨기를 뽐고있지만 화해와 단합을 위한 민족의 통일열기는 그보